

원자력 NEWS

신월성 1,2호기 기공 건설 '본격화'

경주 지역 고용 창출, 경제 활성화에 기여

신월성 원전 1,2호기 건설 공사가 기공식과 함께 본궤도에 올랐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4월 28일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건설 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태성은)에 인접한 건설 현장에서 신월성 원전 1,2호기 기공식을 가졌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에너지 문제가 국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으며 그것이 바로 원자력”이라고 강조하고, “신월성 1,2호기 건설 사업은 새로운 원자력 시대를 여는 시금석이며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궁지”라며 “이 사업이 지역 사회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시공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이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지역 사회와 함께 더불어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중재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방폐장을 유치하는 역사적 함의를 이끌어내어 경주는 우리나라 원자력 역사의 한 장을 새롭게 열어가는 이정표적인 도시로 자리매김 했다.”며 “오늘 이 곳에서 신월성 1,2호기 기공식을 가지며 원자력에 대한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마감하고 화합과 희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기공식 행사가 끝난 후 정세균 산자부 장관과 백상승 경주시장, 이중재 한수원 사장 등을 비롯해 3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3개 기

관 대표들은 방폐장 특별지원금 3,000억원의 지급 시기와 운용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기공식을 가진 신월성 1,2호기는 설비 용량 100만kW급 한국표준형원전의 최신 모델인 개선형 한국표준원전으로 지난해 9월 정부로부터 실시 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부지 정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 7월부터 기초 굴착 공사와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1호기는 2011년 10월, 2호기는 2012년 10월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다.

신월성 1,2호기 건설에는 총공사비 약 4조7,000억원과 연인원 800만명 이상이 투입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내 건설 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신월성 1,2호기가 건설될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지역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주민 투표에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부지로 선정된 곳으로, 신월성 1,2호기 공사를 시작으로 향후 이 일대가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신월성 2호기의 준공 예정인 2012년에는 현재 건설중에 있는 신고리 1,2호기를 포함해 총 24기, 발전 설비용량 2,251만6,000kW의 원전을 보유하게 된다.

방폐장지원금 3천억원 경주시에 지급

한수원(주) 이사회 의결, 전액 지급

한국수력원자력(주)는 5월 8일 제3차 이사회를 열고 방폐장유치지역 특별지원금 지원(안)을 의결한 데 이어 5월 9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지원금

3,000억원을 경주시에 전액 지급했다.

특별지원금 3,000억원은 산업자원부와 경주시, 한수원에 체결된 협약에 따라 경주시 명의의 기탁계정에 입금했다.

경주시는 처분 시설에 대한 전원 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 및 처분 시설 운영 개시 때 각 1,500억원씩 경주시 특별회계로 인출할 수 있다.

연간 약 120억원에 달하는 기탁 계정 발생 이자는 경주시에 귀속돼 시가 이를 수시로 인출해 예산에 편성, 사용할 수 있다.

경주시 봉길리 일대에 들어서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방폐장) 건설 사업은 현재 국내의 전문 기관에서 부지 특성 조사, 환경 영향 평가, 안전성 분석 보고서 작성 등 각종 조사와 설계 작업을 수행 중이다.

내년 하반기 부지 정지 공사에 착수, 올진 원자력발전소의 임시 저장고 포화에 대비해 2009년 1월에 1단계로 10만 드럼 규모로 부분 완공될 예정이다.

한수원은 특별지원금 지급에 이어 오는 8월 말까지 본사 이전 계획을 확정하는 등 방폐장 유치 지역 지원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경주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백상승 경주시장, 이중재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3개 기관장은 4월 28일 경주시 월성원자력본부에서 방폐장 특별지원금 3,000억원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PLUS7™ 개량연료, 올진 원전에 최초 장전

연간 80억원의 핵연료 비용 절감

올진 4호기용 PLUS7™ 연료 64다발이 5월 16일 상용 장전되었다.

한진원자력연료는 지난 1994년 9월, 과학기술부 원자력 연구 개발 증장기 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표준형 개량연료 PLUS7™ 연료의 개발에 착수, 지난 2001년 12월 미국 콜롬비아대학에서 노외 실증 시험을 완료한 바 있으며, 2002년 12월에는 시범집합체 4다발을 올진 3호기에 시범 장전하여 2주기(3년) 노내

실증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현재 3주기째 연소가 진행 중이다.

총180억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본 사업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성을 극대화하고 경제성,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추진됐다.

PLUS7™ 개량연료는 이물질 및 연료봉 마모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고, 추가 확보된 열적성능을 출력 증강 등에 활용함으로써 연간 약 80억원의 핵연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리 1호기 계속 운전 '청신호'

6번째 OCTF 달성, 고리 3, 4호기와 함께 국내 최다

고리 원전 1호기가 국내 최다인 6번째 한 주기 무고장 안전 운전(OCTF)을 달성했다. 이로써 내년 6월 설계 수명을 다하는 고리 1호기의 계속 운전 여부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역 주민의 반대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계속 운전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은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5월 8일 고리 원전 1호기가 지난 2005년 5월 10일부터 2006년 5월 5일까지 361일간 무고장 안전 운전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 1978년에 상업 운전을 시작한 고리 원전 1호기가 OCTF를 달성하기는 이번이 6번째로 고리 3호기, 4호기와 함께 최다 기록"이라며 "국내 원전 전체로는 통산 57회에 달해 한국의 원전 운영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고리 1호기는 지난 한 주기 동안 52.1억 kWh의 전력을 생산했다. 이는 유연탄 189만톤 또는 중유 770만 배럴의 수입을 대체한 것과 맞먹는 것으로, 유연탄 사용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0만톤이나 줄인 것이다.

한 주기 무고장 안전 운전(OCTF: One Cycle Trouble Free)이란 연료 교체 후 다음 연료교체까지 고장 없이 연속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원전 관리, 운영 능력 수준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향후 5년간의 국가 원자력 기본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과학기술부는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시안을 마련하고 한국원자력학회와 함께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공청회'를 5월 18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는 향후 5년간의 국가 원자력 기본 계획인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시안에 대해 발표하고 패널토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2007년부터 추진될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그동안 추진된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되, 고유가 지속과 기후변화협약 발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4원칙' 등 국내외의 최근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종합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이번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는 해수 담수화용 SMART 원자로 개발 및 제4세대 원자로 국제공동 개발 추진, 원자력 수출 산업화 방안 수립, 핵비확산성 핵연료 주기 기술 개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적기 완공, 방사선 연구 인프라 구축, 선진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관리 체계 구축, 테러에 대비한 국가 물리적 방호 시스템 구축 등의 계획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2011년 말에는 세계 5위의 원자력 기술 수준 달성, 친환경 지속 가능 국가 기반 에너지로서의 기여 증대, 암 치료를 통한 국민 복지 증대, 기초과학 활성화와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과 함께 원자력 기술의 활발한 해외 수출 등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원자력 관계 기관 및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원자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성과를 보면, APR1400 표준설계 인가 획득,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부지 확정, 해수 담수화용 SMART 기본 설계 완성, 한국형경수로핵연료 PLUS 7 개발, 방사선 분야 진흥을 위한 방사선이용진흥법

제정, 정읍 방사선 연구원 설립을 통한 방사선 이용 기술 개발 확대, 권역별 사이클로트론 설치·운영을 통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지원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원자력 기술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였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원자력 통제 제도 종합 개선 계획 수립 및 추진

원자력 통제 체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도 제고

과학기술부는 2004년 말 불거졌던 과거 핵물질 실험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과 함께 '원자력 통제 제도 종합 개선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 계획에는 우리 정부의 초청으로 2005년 7월 실시된 'IAEA 핵물질 계량 통제 국가 체제 국제 자문 서비스(ISSAS)'의 결과 보고서의 권고 사항도 반영되었다.

주요 내용은 과기부 내에 '원자력통제팀' 신설, 기술 지원 기관으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설립, 원자력 연구 개발에 대한 관리 제도 도입, 산·학·연 관계자 통제 교육 훈련 운영, 원자력 관련 수출입 사항에 대한 관세청의 과기부로의 통보 등이 있다.

이 계획의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제 핵비확산 체제 강화 동향에 적극 동참하고 우리의 원자력 통제 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용 원자로 이용 '냉중성자 실험동' 기공식

'하나로 심포지엄 2006' 동시 개최

국내 유일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HANARO)에서 생산되는 중성자를 나노 과학과 바이오 기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냉중성자 실험동' 기공식이 국내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5월 10일 오전 10시 30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최되었다.

냉중성자 실험동은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서 차가운 중성자(냉중성자, cold neutron)를 대량으로 생산한 뒤, 이를 특수한 유리관인 '중성자 유도관'을 통해 수송, 다양한 냉중성자 산란 장치를 이용해 실험을

수행하는 대규모 실험동으로서, 차가운 중성자의 특성과 강점을 활용해 나노 영역의 구조와 운동을 측정·분석하는 중요한 도구로 광범위한 기초과학 및 응용 분야는 물론 나노 과학, 바이오 기술 등 21세기 국가 과학 기술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 기반 연구 시설이다.

이번 냉중성자 실험동이 원공되면 그동안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만 수행해 오던 연구를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되어 기술 수준의 한 단계 도약이 예상된다.

냉중성자 실험동은 2004년 설계에 착수하였으며, 총사업비 189억원을 투입해 2008년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냉중성자 실험동 기공식에 맞춰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의 운영 및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로 심포지엄 2006」이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원자력연구소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에서 개최되었다.

‘이용자 중심의 하나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하나로 운영 및 이용 현황과 계획, 호주 연구로 건설 현황 등에 관한 특별 강연에 이어 기술 분과 발표, 전문 연구회의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하나로 심포지움’은 하나로를 이용하는 산·학·연 전문가의 정보 교환과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한 하나로 이용을 극대화하고, 그동안 수행해 온 연구 성과를 점검하여 이용자 중심의 연구 시설을 만들어 가기 위한 자리로서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반세기에 접어든 한·미 원자력 협력 원자력 협력 50주년 기념식과 세미나 개최

지난 1956년 2월 우리나라와 미국이 원자력 협력 협정을 맺은 지 올해로 50주년이 되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한·미 원자력 협력 50주년 기념 ‘국제원자력기구 에너지 모델’ 워크숍 개최되었다. 박영일 과학기술부 차관과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 등 양국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여린 이날 기념식에서 양국은 원자력 협력 협정 5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패를 교환했다.

같은 날 『한·미 원자력 원자력 협력 50년의 의미

와 향후 전망』이라는 제목의 특별 세미나가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셸멜 미 국무부 부차관보, 박한규 경희대 교수 등 양국 정부·학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양국 원자력 협력의 미래 발전 방향 등을 논의되었다.

한편 양국에서 매년 교대로 개최되는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 제27차 회의가 이문기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과 셸멜 미 국무부 부차관보를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5월 1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국은 원자력 정책 현안에 대한 논의와 원자력 연구 개발 등 기술 협력, 원자력 안전, IAEA 안전 조치, 원자력 방재 분야 등에 대한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표준형원전(OPR 1000) 베트남에 적극 홍보

국내 원전 10개사, 베트남 하노이 전시회 참가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 한전, 한국전력기술, 두산중공업, 한국원전연료, 현대건설, 대우건설, 한국원자력연구소,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10개 업체, 기관은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베트남 국제 원자력전람회’에 참가하였다.

이들 10개사는 전람회 기간 중 한국관을 공동으로 설치, 한국표준형원전(OPR 1000)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집중 홍보하여 내년 이후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는 베트남 원전 수주 활동을 본격화했다.

한편 10개사 고위 관계자들은 전시회 기간중에 베트남 총리실, 산업부 등 정부 관련 기관을 잇달아 방문해 황 쯙 하이(Hoang Trung Hai) 산업부 장관 등 정부 유력 인사와 면담을 갖고 베트남 원전 사업 진출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국제원자력기구 에너지 모델’ 워크숍 개최

에너지 수요 예측, 전력 수급 계획 등 국가별 운영 사례 교류

‘국제원자력기구 에너지 모델’ 워크숍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17개국 에너지 정책 관련 정부 관계자 및 원자력 전문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계자 등 21

명이 참가한 가운데 4월 24~28일까지 한국원자력연구소 국제원자력연수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IAEA가 개발한 '에너지 모델'의 활용 사례에 대한 회원국 간의 경험을 교류하고 추가 훈련 수요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모델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에너지 모델에 대한 추가 교육 필요성을 검토해 회원국의 합리적인 에너지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열렸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 이란, 베트남,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크로아티아, 쿠바, 헝가리, 인도네시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시리아 등 17개국이 참가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IAEA 에너지 모델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에너지 모델에 대한 회원국의 운영 사례 발표와 향후 추가로 필요한 훈련 과정에 대해 논의되었다.

에너지 모델은 에너지 수요 예측, 전력 수급 계획, 에너지 및 전력 수급의 시뮬레이션, 전력 프로젝트의 재무 분석, 발전원별 환경영향 분석 등 에너지 정책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IAEA가 개발해 회원국에 배포하고 있는 에너지 모델은 현재 100여개가 넘는 회원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글로벌 원자력 안전 체제 대응 방안' 논의

2006년도 제1회 원자력안전포럼 개최

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월 24일 원자력안전기술원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원자력 안전 체제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2006년도 제1회 원자력안전포럼을 개최했다.

과기부를 비롯해 원자력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가한 이번 안전포럼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가입 의미와 전망, 핵물질 방호·테러 억제협약 현황과 계획,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의 수출 전략 등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동북아 국가간 협력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한 외교안보연구원 이동휘 교수의 초청강연을 시작된 포럼은 ▲국제 규범 이행 ▲국제 원자력 개발 현안 ▲다자간 협의체 등 3개 세션과 종합 토론 등으로 진행되었다.

울진 4호기 제 6차 계획 예방 정비 착수

32일간의 일정으로 연료 교체 및 예방 점검

울진원자력 4호기(가압경수로형, 100만kW급)가 5월 22일 472일간의 한 주기 무고장 안전운전(OCTF)을 달성하고 제 6차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갔다.

32일간의 일정으로 수행되는 이번 계획 예방 정비 기간에는 원자력 연료 교체와 각종 기기정비 및 설비 개선을 수행하고 오는 6월 23일경 발전을 재개한다.

"세계 최고의 발전 회사가 되자"

한수원, '2006 BEST KHNP 운동' 출범식

한국수력원자력(주)는 4월 24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2006 BEST KHNP 운동' 출범식을 가졌다.

이중재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원전본부장, 주무처장 및 제2기 혁신 선도 요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출범식에서 한수원은 경영 혁신을 통해 세계 최고의 발전 회사가 되자는 각오를 다졌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혁신 선도 요원 결의문 낭독 및 임명장 수여와 함께 한수원의 2006 경영혁신 추진 계획이 발표되었고 '지속적 혁신의 조건(홍길표 천안대 교수)'과 '공공 부문의 혁신 사례 및 정부 혁신 추진 방향(김경엽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장)'이란 주제로 외부 강사의 혁신 특강이 있었다. 또 출범식 후 1박 2일 일정으로 제2기 혁신 선도 요원에 대한 교육이 시행됐다.

한수원은 BEST KHNP 운동, 혁신 추진 체계 수립, 혁신 학습 등을 통한 혁신 문화 체질화를 바탕으로 ▲역량 중심의 조직·인사 ▲효율 중심의 프로세스 ▲성과 중심의 기술·사업 ▲고객 중심의 고객·지역 사회 등의 혁신 전략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한수원은 이러한 혁신 전략의 추진을 통해 ▲최고로 일 잘하는 기업(BEST Capability) ▲효율성 있는 선진화 기업(BEST Competitiveness) ▲최고의 기술 기업(BEST Creativeness) ▲국민이 신뢰하는 기업(BEST Credibility)이란 혁신 비전을 완성, ▲글로벌 경쟁력 확보 ▲국민으로부터 신뢰 제고라는 경영 목표

를 달성하고 최종적으로 '인간·환경·기술을 증시하는 세계 최우수 발전 회사'라는 한수원의 경영 비전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핵연료 기술 정보 교류 연차대회 개최

한전원자력연료·일본 NFI,

한전원자력연료(주)는 4월 19일~21일까지 제주에서 일본 NFI사(Nuclear Fuel Industries, Ltd.)와 제 10차 기술 정보 교류 연차대회를 가졌다.

양사 사장과 실무진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차대회는 협정 체결 1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10년을 설계하는 자리로, 핵연료 설계 및 안전해석 등의 분야에서 모두 14건의 주제 발표 및 토의가 이뤄졌다.

한전원자력연료는 1995년 12월 일본 NFI와 노심 설계 및 핵연료 제조에 대한 기술 정보 교류와 상호협력력을 목적으로 기술정보교류협정을 체결해 매년 일본과 한국에서 교대로 연차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일본 NFI는 일본 내 가동 중인 가압경수로(PWR) 및 비등경수로(BWR)에 소요되는 핵연료의 50%를 공급하고 있는 핵연료 회사이다.

'한수원 중소 협력업체 모임' 최초 출범

창립총회 개최, 회장에 조성은 무진기연 대표

'한수원(주) 중소 협력업체 모임'(이하 협력업체 모임)은 4월 24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총42개사가 모임 참여를 약속한 가운데 30개 회원사가 참여, 창립 총회를 열고 조성은 무진기연 대표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회칙을 제정했다.

초대 회장에는 조성은 무진기연 대표가 추천되어 만장일치로 초대회장에 선출되었으며, 부회장단에는 우양호(주)성일에스아이엠 대표, 두석만 신정우산업 대표, 류형선(주)일진정공 총괄부사장 등이 선임되었다.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조성은 무진기연 대표는 회장 수락 인사말을 통해 "한수원 중소 협력업체 모임인 오늘의 이 자리는 그동안 좀처럼 만나기 힘들었던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국가 경제와 한수원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성장 발전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은 초대 회장은 초대회장으로서 산-산(産-産) 협력 클러스터의 구축과 한수원과 같이 성장하는 중소기업 지향, 그리고 발전 산업 특히 원자력 발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역 공동체 경영' 2년만에 착근

지역과 '하나' 인식 확산, 직원 94% 자발적 후원 앞장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지역 공동체 경영'이 도입 2년 만에 탄실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공동체 경영'은 한수원이 2004년 4월 사장 경영 방침으로 정하고 나선 이래 2006년 4월 현재 6,700여명(94%)의 임직원이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공동체 경영'이란 원자력과 지역 사회는 독립된 각자의 하나이거나 둘이 아닌 하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한수원 안에서는 이를 '원토불이(原土不二)'라고 부른다.

한수원 경영기획처 지역협력실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월, '지역이 살아야 한수원이 살고, 한수원이 성장해야 지역이 성장한다'는 구호 아래 본사와 원전 사업소에 각각 지역협력실과 대외협력실을 신설, 보강하는 등 조직 체계를 구축했다.

성공적 '원토불이'를 위해 지난해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회봉사대, 의료봉사대, 지역봉사대 등 13개 봉사대를 차례로 구성하는 등 장기적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을 임직원이 함께하며 토대를 닦아 나갔다.

한수원 직원의 참여도는 지난해에 이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4월 현재 전 직원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3,800여명(54%)이 봉사대원으로 정식으로 등록해 활동을 펴고 있으며, 이들 봉사대 활동의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성중인 '리브펀드'에 후원자로 이름을 등록하며 참여하는 직원은 전체 직원의 94%인 6,7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통계치는 신입 직원과 비정규직을 포함시킨 것으로 실제 이들을 제외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은 전원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

모든 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하고 있는 '러브펀드'와 이에 상응하는 사측의 지원금 '매칭그랜트'를 통해 지원되는 모금은 매월 6,000만원으로 한해 7억 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모인 후원금은 지역 사회 봉사대의 활동비와 저소득층 내지 결손 가정, 독거 노인 등의 가정 지원을 위한 물품 비용 등으로 사용된다.

“원자력은 현실적 대안 에너지”

대학생 원전 체험단 참가자 설문 조사 결과

산업자원부가 원전 체험단 행사에 참가한 293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원자력을 기후 온난화를 막는 현실적 대안 에너지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원전 견학 전·후 인식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나 직접 체험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산자부가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난 4월 28일~29일 양일간 울진, 영광, 고리원자력발전소 체험 행사를 가진 자리에서 설문조사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원자력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현실적 대

안 에너지라는 질문에 대해 견학 전 56.5%가 찬성했지만 견학 후 80.3%가 찬성해 원자력을 기후변화에 대비한 긍정적 에너지원으로 평가했다.

또 이번 체험 행사를 통해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의 이용에 대한 지지도는 견학 전 71.5%에서 견학 후 94%로 23.5% 상승했으며, 원자력발전소 안전 관리에 대한 신뢰도도 76.9%에서 95.1%로 18.2% 증가했다.

이밖에 원자력발전소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의견은 견학 전 53.0%에서 견학 후 71.9%로 18.9% 증가), 원자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견학 전 54.7%에서 견학 후 80.0%(25.3% 증가)로 상승해 수용성의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 조사에는 체험 행사 참가자 293명 중 남학생 196명, 여학생 89명 등 285명이 설문조사에 응했으며 8명은 답하지 않았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285명의 전공을 보면 원자력 관련 학과 55명(19.3%), 인문·사회 계열 32명(11.2%), 이공, 의치학 계열 128명(44.9%), 예체능 계열 1명(0.4%), 기타(교육대학 등) 69명(24.2%) 등이다.

원산 소식

제28회 한·일 원자력산업 세미나 준비위원회 회의 개최

2006년 10월에 일본에서 개최예정인 제28회 한·일 원자력산업 세미나 준비위원회 1차 회의가 5월 18일(목) 14:00에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각 관련 기관에서 위촉된 준비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세미나 개최 일정 검토하고 우리 한국 측 관심 분야를 토대로 일본측에 제안할 기술 세션과 패널 세션 및 전문가 토론 세션의 제목들을 선정하였다. 이날 협의된 세미나 개최 일정과 세션별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세미나 개최 기간 : 2006년 10월 23일(월) ~ 24일(화) [2일간]
- 산업 시찰 기간 : 2006년 10월 25일(수) ~ 27일(금) [3일간]
- [기술세션] (1) 원전 운영, 유지 및 보수 (2) 방사성 폐기물과 환경 (3) 원전 신기술 (4) 원전 설계 및 건설
- [패널 세션] 원자력의 역할과 미래 및 전망
- [전문가 토론] 원전 수명 관리

본 한·일 원자력산업 세미나의 최종 세션 주제는 한·일 준비위원회의 의견 조정을 거쳐 추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